



글. 이상정  
/무림교역대표·한화협이사/

# 뒷간과 화장실 미학

## 분양법의 전래와 분뇨의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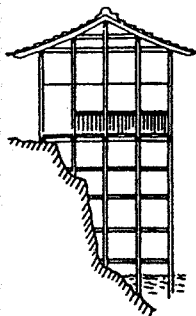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볼 때 인분을 저류하게 된 것은 분양법을 도입하면서 부터이다.

인분을 퇴비로 하여 지력의 쇠퇴를 방지하고 농작물의 수확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분양법이 사용되었다. 결국 분양법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변소가 언제부터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어졌는가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미 중국의 은나라(BC 1401~1122)때부터 사실상 전답에 분을 뿌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서 단전'이라는 갑골문의 해독을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따라서 분양법이 시작된 시기를 이때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을 듯 하다. 당시의 유적으로 바퀴가 하나로 된 일륜차가 종종 발견되는데 그 중에는 분뇨를 운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있다. 이는 분뇨를 논·밭의 흙에 기도 했는데 이를 분병이라고 불렀다.

고대 중국의 이러한 농경법은 한반도에도 전해졌다. 은의 봉왕신의 숙부인 기자가 정전법을 간언했다가 받아 들여지지 않게 되자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기자조선을 건립했다는 설이 있다. 기자조선이 실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학자들 간에 여러 의견이 분분하니 그 자체의 관한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때 은의 분양법이 한반도에 전해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 이때 정전법은 9년만의 정법이 아니라 4년만에 농사를 짓는 전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분양법과 정전법은 그 후 삼한시대를 거쳐 신라시대로 전해졌다. 지금도 경주에는 이 정전의 유지가 남아있다.



## 고대의 변소 칩청

우리말에 변소를 다르게 이르는 말로 '칩간'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한자의 [廁間]에서 나온 말로서 [廁]은 중국, 일본 등 한자 문화권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변소를 '칩간'이라 부른다. [廁]자의 [尸]은 '지붕'을 의미하며 [間]은 '따뜻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廁]은 지붕 밑에 들어가 배설을 한다는 뜻이 된다.

이를 좀더 확대해서 유추 해석하면 배설 행위는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 즉 변소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또 한편 변소를 '칩청(廁圉)'이라고도 했다. [靑]은 [淸]의 약자(略字)로서 '물을 이용해 깨끗이 한다'는 뜻이 숨어있고 [圉]는 사방을 둘러싼다는 뜻이다. 따라서 칩청(廁圉)은 사방을 둘러싼 집 안에서 배설 행위를 하는데 그 처리를 물을 이용해 한다는 뜻이 된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강기슭에 변소를 짓고 분뇨를 강물 위해 떨어지게 하여 강물이 오물을 처리해주는 수장식



화장실의 원리를 이용했다. 이 양식은 그 후 일본에도 전해져서 '가와야(川屋)'라는 이름으로 널리 응용되었다. 칩칭은 일종의 수세식 변소라 할 수 있는데 수세식은 하수도 시설이 발달한 유럽이나 동양 또는 물이 많은 남방(南方)에서 발달했던 형식이다. 일찍이 분노를 비료로 사용했던 농경 문화권의 한국에서는 일부 강변 마을에서 일시적으로 시험했던 양식으로 생각된다.



부여군수리 절터에서 발굴된 변기 /남성용



여성용 변기

## 한국의 요강문화

분뇨를 퇴비로 이용하던 농경 문화권에서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되도록 후미지고 먼 곳에 칩간을 두어 분노를 배설하고 저류했다. 생리적으로 자주 배설해야만 하는 소변까지 칩간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해온 간이식 변기가 바로 요강이라는 그릇이었는데 중국에는 요강과 비슷한 호자(虎子)라는 것이 있었고 일본 역시 이와 비슷한 수병(澆瓶)이라는 소변기가 있었다.

농경문화와는 깊은 관계가 없었지만 생활의 필요에 따라 유럽에서도 일찍이 '볼타르'나 '오마르' 같은 변기가 있어서 널리 이용되었다. 요강은 마치 작은 항아리처럼 생긴 것으로 그 위에 뚜껑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다. 그 크기와 용량이 다양하고 모양은 밀이 둥글게 넓고 배가 볼록하여 넘어질 염려가 없었다. 재료의 종류도 유기, 청동, 철자, 백자외에도 도기, 자기, 오동나무에 옷칠한 것 등 매우 다양하다.

### 요강 문화의 발달

작은 요강은 대개 사랑방 어른 전용의 용도로써 바지 허리 속으로 넣어서 소변을 받아내는 용기로 쓰였다.

큰 요강은 안주인과 가족들이 함께 쓰거나 사랑에서 여러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썼다.

용량에 따라 이방 저방에 하나씩 두고 썼지만 뚜껑이 있고 예쁘게 장식된 요강은 새색시가 혼수로 가져와서 쓰는 경우도 많았다. 요강에 꽃 무늬가 있는 것은 대개 여자들의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남자용의 요강은 뚜껑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백자 또는 사기 요강의 경우에도 단백색의 단순한 모양이 대부분이었다.

요강의 재질은 제조 연대를 밝히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청자 요강은 고려시대, 백자 요강은 조선시대, 그리고 청동요강은 고려시대, 백자 요강은 조선시대, 그리고 청동요강은 그 전후의 시대를 통해 제조, 사용되었던 것 같다. 놋요강은 생활 용기가 놋쇠로 바뀌던 때부터 일반화된 것이었지만 일제 말기 무렵전량을 군수물자로 걸어 갔기 때문에 광복 전후에는 자기와 도기, 사기와 두꺼운 화기 요강만을 쓰던 시대가 계속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요강을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다.

다만 일본의 한 박물관에는 부여읍 군수리(夫餘邑 軍守里)절터에서 발굴된 한국 고대의 변기가 남아 있다. 195년에 여성용이 출토되었고 그 후 20년 뒤에는 남성용이 출토되었다. 표주박처럼 생긴 모양에 손잡이가 달려 있는 이 변기는 백제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면 그후 요강으로 발전된 것 같다.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가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경까지 마한을 중심으로 발달되었음을 상기할 때, 이미 이때부터 고위층 가정에서는 청동으로 된 요강 같은 것들 사용했을 것이라고도 짐작할 수 있다.

백제시대의 변기는 그 후 항아리와 같이 안정적인 모양으로 변화하였고 동시에 그 재질도 청자, 백자 등으로 발전되었다.